한민족의 정기 오롯이 품었구나

◇노고단에서 바라본 지리산. 멀리 보이는 가장 우뚝한 봉우리가 백두대간 남한 구간중 가장 높은 천왕봉이다. 왼쪽사진은 천왕봉 아래 중봉에서 노고단쪽으로 바라본 지리산의 모습.

프롤로그

13정맥과 10대강 품에 안은 대간

도선스님의 '옥룡기' 백두대간 개념 원류

백두에서 지리까지 이어져 이땅의 등뼈 이루는 산줄기

하늘로 오르는 한 길이 있으니, 이름하여 백두대간이다. 또한 그 길은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서는 길이기도 하다. 솟구치며 물을 풀어 놓는 까닭이다. 그리고 그 물은 온 땅을 적시며 뭇 생명을 길러낸다. 사람 또한 그 길을 오르내리며 삶을 엮어간다. 산에 등 기대고 강물에 발 적시며 살아가는 것이다.

산을 오르는 모든 길은 오름과 내림의 연속이다.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저 홀로 곧추선 게 아니기 때문이다. 크고 작은 수많은 봉우리들이 어깨를 겯고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하나의 산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등산과 하산은 동의어이기도 하다.

백두대간 또한 크고 작은 산들로 이어지는 이 땅의 으뜸되는 산줄기이다. 백두산에서 출발하여 지리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도상 거리 1625㎞: 자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백두대간에 가장 많은 땀을 보탠 한 사람인 조석필씨의 글에서 그대로 갖다 쓴다) 이 땅의 등뼈를 이루는 산줄기. 그것이 바로 백두대간이다. 지극히 당연하게도 금강산, 설악산, 점봉산, 오대산, 태백산, 소백산, 속리산, 덕유산과 같은 대부분의 명산들이 대간 위에 자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백두대간은, 두류산 조금 못미처 서부터 동해 맨 꼭대기의 서수라에 이르는 장백정간을 추켜올리고는, 줄곧 남으로 내달리다 매봉산에서 몸을 틀어 서남쪽을 향하다 속리산을 부려놓고는 다시 남으로 지리산에 이르는 동안 13개의 정맥을 걸쳐 놓는다. 정맥과 정맥 사이로는 이른바 10대강을 품에 안는다. 한강 수계니 낙동강 수계니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네 삶이 강줄기를 터전 삼고 산줄기를 울타리로 삼을 수밖에 없음이 이로써 분명해진다.

문화권이라는 것도 그렇다. 인위적인 행정 구역이나 산맥 개념의 추상적인 지리 공간에 의해 모둠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줄기에 의해 결정된다. 영남 지역이라 함은 새재의 이남을 말하며, 영서라 하면 대관령의 서쪽을 일컫는다.

이렇듯 우리의 산과 강은 뼈와 살의 구조를 이룬다. 산이 체(體)라면 강은 용(用)이다. 몸과 몸짓의 관계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지리 인식이 산경(山經)의 원리인데, 그 내용은 지극히 간단하다. 산자분수령(山自分水嶺). 산이 물을 가른다는 것이다. 당연히 물은 산을 넘을 수 없다. 또한 이 말 속에는 산 또한 물을 건너지 않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고산자 김정호가 대동여지전도의 발문에서 밝힌 이 원리는 우리네 전통지리학의 핵심 원리이다. 바로 이러한 원리에 의해 산경 즉 끊임없이 이어지는 산줄기를 정리한 책이 〈산경표〉(우리 나라의 산줄기를 족보식으로 정리한 책으로 편찬자는 분명하지 않다. 18세기 중반 이후에 나온 것으로 추정한다)인데, 그것의 실제 모습이 바로 1대간 1정간 13정맥이다. 이로써 우리는 마치 책 손바닥의 손금 들여다보듯이 우리 땅의 실체를 육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산맥은 어떤가. 예를 들어 '마식령산맥'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지리학자나 입학 시험을 앞둔 학생들 빼고는 거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산맥은 지질 구조를 바탕으로 그은 것이므로 실제 지형과는 동떨어져 있다. 아무리 그 이름을 외워봤자 실체로 다가오기는커녕 생각수록 생뚱맞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아프리카의 국경선들이 네모 조각으로 모자이크된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대간과 정맥은 그렇지 않다. '한북정맥' 하면 확실히는 몰라도 아, 한강의 북쪽에 있겠구나. 그래서 소양호 쪽에서 흘러내리는 강줄기를 북한강이라 하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거 된다. 더욱이 우리의 대간과 정맥은 실제로 그 등마루를 따라 걸을 때, 단 한 번도 물을 건너지 않고 온전히 밟아 나갈 수 있다. 백두산 꼭대기에서 지리산 꼭대기까지 한번도 신발을 벗지 않고 온전히 밟아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간과 정맥이 다시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낸 것은 80년대 초다. 이우형이라는 한 지도 연구가에게 인사동의 고서방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던 〈산경표〉가 얼굴을 내민 것이다. 그 후, 박용수나 조석필과 같은 사람들의 열정적인 노력이 등신 전문지인 〈사람과 산〉이라는 명석을 만남으로써, 산맥이라는 낡(일제)이 만들어 준 도수 맞지 않는 안경을 벗어던지고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산천을 바로 볼 수 있게 된다. 미리 밝히건대, 이 작업 또한 이러한 분들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때론 남의 글에서 얻은 내용을 갖다 쓰면서도 일일이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용서한 변명이지만 매체의 특성상 어쩔수 없음으로 이해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미 다 아는 얘기지만 산경의 원리는 18세기에 집성된 조선의 지리학적 성취다. 하지만 그 뿌리는 신라로 거슬러 올라가며 고려로 이어진다. 다음의 인용문은 〈고려사〉의 한 부분으로, 공민왕 6년(1357), 사천 소감 우필흥(于必興)이 왕에게 올리는 글의 일절이다.

"옥룡기(玉龍記)에 이르기를 '우리 나라는 백두산에서 시작되어 지리산에서 끝나는데, 그 지세(地勢)의 본 뿌리는 수(水)요 줄기는 목(木)이라…(司天少監于必興上書言玉龍記云我國始于白頭終于智異其勢水根木幹…. 번역은 북한 사회과학원의 것임).

위의 글에서 옥룡기(玉龍記)라 함은 옥룡비기 또는 옥룡비결 등으로 불리는 도선(道詵, 827~898) 스님의 예언서를 가리킨다. 도선 스님이 누구인가, 동리산문의 선풍을 이어 옥룡산문을 연, 신라말 후삼국 격변기의 대선사이자 한국 풍수의 비조가 아니든가.

이러한 우리 땅에 대한 인식은 〈택리지〉로 널리 알려진 이중환(1690~1752)에 의해 학문적으로 체계화되고, 이것이 후대로 계승되어 신경준(1712~1781)의 〈산수고(山水考)〉, 정약용(1762~1836)의 〈대동수경(大東水經)〉 등 자연지리서를 낳고, 정상기(1678~1752)의 '대동지도'를 이어 김정호(생몰 미상, 1800~1864년 사이로 추정)의 '대동여지도'로 꽃핀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조선 후기의 지리학적 성과가 실학이라는 당시의 실천적 학문 토양에서 집성되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 조선 후기의 시대 상황을 거울 삼을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또한 김정호보다 1세기나 앞선 정상기의 동국지도에 이미 모든 산들이 개별적이 아니라 이어진 맥으로 그려졌다는 사실도 똑똑히 기억해 둘 대목이다.

이제 대간의 끝 등마루인 지리산의 천왕봉에 올라선다. 백두로 나아가고자 함이다. 동강난 허리에서 시작할 바에야 그 시원을 가능성으로 남겨 두고 싶은 것이다. 백두산이 어디 보통 산인가. 이 땅의 뿌리이자 머리인 산이 아니던가. 형국으로 치면 뿌리이지만 그 기상은 하늘에 닿아 있으니 어찌 머리라 하지 않겠는가.

모쪼록 이 걸음이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발원해 본다.

◇천왕봉의 성모마고상. 지금은 중산리의 천왕사에 모셔져 있다.

글: 윤재학

산문(山門)이라는 말이 있다. 산의 어귀를 일컫는 말이다. 또한 적의 입구를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 제 1의 의미는 적의 입구다.

명산(名山)라 칭하여 대찰(大刹)은, 구슬과 비처럼 작도 어울선다. 그래서 산은 가슴을 수호하는 신공이 되고 한 톡의 행하가 된다. 따라서 이 작업은 이 땅이 곧 정토이기를 꿈꾸는 나의 오체투지가 될 것이다.

· 본사 '여시아문' 출판부장, 동화작가

사진: 손재식

80년대 중반 이후 들불처럼 번진 '백두대간 밟기 운동'이 부쉬 내린 듯한 지금, 사진가로서의 나의 고민은 새롭게 싹트고 있다. 아직 해야할 일이 숙제처럼 남아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대간을 걷고 또 걷는 동안 우리 산천의 아름다움이 내 눈으로 가늠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바랄 것 없는 행운이라고 생각해야겠다.

· 사진작가, '사람과 산' 편집위원

황금꽃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특이할 만한

구도의 대지침서

제3의 눈을 찾아서

저자 도엽

도서출판 황금꽃에서 판매하는 책이나 테잎들을 인터넷 쇼핑몰 (http://www.bookmall.co.kr)을 이용하여 구입하시는 분들은, 배송 5분을 추첨하여 인도 루나에 있는 구도 명상 훈련지 초대합니다

제3의 눈의 개안(開眼)은 모든 구도의 99%를 차지하는 구도의 대본(大本)이다.
이 책은 저자의 30년 간의 수행과 체득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이고 살아있는 구도서이다.

석가모니 부처나 보살들의 이마에 제3의 눈의 표시가 있는데, 그것을 '백호(白毫)' 혹은 '영안(靈眼)' 이라고 한다. 부처님도 '동방의 샛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동방의 샛별은 옛날부터 '영안'의 고유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이름이다. 또는 부처님은 비파싸나 호흡법으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비파싸나 호흡법은 영안 집중과 분리할 수 없는 호흡법이다.

제3의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이 자신의 의지대로 이루어진다.
제3의 눈을 열자! 이 책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정가 12,000원

"제3의 눈은 육체의 부분으로 존재한다. 그대가 죽을 때, 그대의 육체는 죽지만 제3의 눈은 그대와 함께 이동한다. 그것은 새로 탄생한다. 두 번째 육체가 죽지 않는다면 그대는 탄생, 죽음, 재탄생, 재죽음의 반복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제3의 눈의 계발이, 이 지상에서는 마지막 단계이다. 그 다음은 부처, 신의 단계, 우주와 하나가 되는 단계뿐이다. 그는 지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제3의 눈이 활성화되지 않은 사람은 무엇인가의 예속(隷屬)을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알라신, 가미사마, 또는 귀신, 조상(祖上)을 숭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명상 중에 나를 만나면, 즉시 죽여라"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 본문 중에서 –

'고타마 붓다'의 영혼을 받아들인 오쇼의 이야기 !

– '무심(無心), 그 영원의 꽃들'인 20명의 선사(禪師)들에 대한 강의 –

정가 9,000원

고타마 붓다 / 보현(普賢)
락산 / 석두(石頭)
남전(南泉) / 수산주(獸山主)
대주(大珠) / 방산(方山)
대자(大慈) / 위산
마조(馬祖) / 유관(惟寬)
문수(文殊) / 방정(龐蘊)
바쇼(Basho) / 장사(長沙)
법안(法眼) / 조주(趙州)
보리달마(菩提達磨) / 혜각(慧覺)

5월 19일 출간

무심 그 영원의 꽃들

저자 오쇼 / 울진이 류원장

일본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유명한 신도(神道) 신사(神社)의 영능력자인 카츠에 이시다는 오쇼의 사진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미륵불(彌勒佛, Maitreya The Buddha)이 들어간 그 사람이다. 그는 21세기의 유토피아를 창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수많은 파괴적인 힘이 그에 맞서고 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그를 사탄이라 부른다. 그러나 나는 결코, 독극물에 중독된 사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사탄은 흔히 독극물을 중독시키는 자이지, 독극물에 중독되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이 사람, 오쇼를 보호해야 한다. 부처가 그에게 들어갔다."

카츠에 이시다

"7주 동안의 투쟁의 마지막 날, 모든 고통이 나의 육체로부터 사라졌다. 그것은 거의 기적처럼 일어났다.
그 마지막 날 밤, 한밤중에 나는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드문 일이었다. 아무도 나의 방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나는 눈을 떠야 했다. 방 안은 무척 어두웠다. 그러나 나는 문득 순수한 빛으로 이루어진 한 인간이 닫힌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나는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손님은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향기로웠다. 나는 그를 선뜻 내 가슴 안의 침묵 속으로 받아들였다.
이 순수한 빛의 몸은 다름 아닌 '고타마 붓다'였다.
그대는 지금도 나의 눈 속에서 내가 내 안으로 흡수하였던 그 불꽃을 볼 수 있다. 2,500년 동안 은신처를 찾아 지구를 배회했던 불꽃을." – 오쇼 –

도서출판 황금꽃 전화 02)711-4227,8 / 팩스 02)711-4229